

개혁신주의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본 12신조

박 용 규
(역사신학)

서 론

I. 12신조의 채택과정

II. 1907년 제 1회 독노회 때 채택한
조선장로교 12신조

III. 1934년 “12신조”의 재번역과 용어
상의 개정 작업

IV. 1907년 채택한 “12신조”에 대한
평가

V. “12신조”와 칼빈주의 신조(돌트 신
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와의 비교

결 론

서 론

1907년에 한국장로교회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장대현교회에서 발흥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평양대부흥운동과 그해 9월 10일 조직된 제 1회 독노회가 바로 그것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새로 조직되는 한국장로교회 독노회를 준비하시려는 일종의 깊은 섭리였다. 새로 조직된 독노회는 12신조를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로 채택했다.¹⁾ 1907년 1년 시험적으로 채택된 이 신앙고백은 그 다음해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번역 상 오류를 수정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로 내려오고 있다.²⁾ 12신조가 채택된 지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고, 현재를 점검하면서 21세기의 미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총회가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앞서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황재범 교수와 박순오 목사의 논문과 발표는 12신조에 대한 자료 발굴과 문제 제기를 통해 현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³⁾ 이미 12신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좀더 12신조에 대한 역사신학적 검토가 요청된다. 12신조에 대한 역사신학적 조명 없이는 12신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신조와 관련하여 우리는 12신조가 장로교의 신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사상에 얼마나 충실한 신조인가? 하는 질문과 “과연 12신조가 오늘날의 한국장로교회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신조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져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전자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신학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⁴⁾

-
- 1) 郭安全, 韓國教會史 改訂增補版 (서울: 기독교서회, 1973), 136-137. 광안전은 1907년 제 1회 독노회 때 있었던 중요한 처리 사항으로 첫째, 7인의 목사 안수(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인서, 길선주), 둘째 “신앙고백(신경)과 정치형식을 제정한 일,” 셋째, “미국의 남북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및 호주 장로회에 감사장을 발송하는 동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조직됨을 통지할 일,” 넷째, “종래의 소회(小會) 대신에 경기, 충청, 평북, 평남, 함경 및 전라도 지방에 7개의 대리회(代理會)를 두어 노회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일”을 꼽고 있다.
 - 2) 郭安連, 朝鮮예수교長老會 憲法 (평양: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34), “序言.”
 - 3)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200-224; 박순오, “12신조에 나타난 보편구원론적 사상은 정통주의 장로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1-10; 총회 교육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박순오, “초기 한국장로교 신학과 12신조에 대한 교회 교육적 성찰및 현대적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 1-19. 특별히 황재범 교수의 연구는 12신조의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깊은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 4) 본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국기독교회사 2권에서 단편적이지만 핵심 논점을 다루었다.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권 1910-1960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64-67.

I. 12신조의 채택과정

모든 신조들이 그렇듯이 그 태동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신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점에서 12신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국선교는 1884년 9월 20일 북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이듬해 4월 5일 언더우드가 입국했고, 4년 후인 1889년 호주빅토리아장로교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내한했다.⁵⁾ 북장로교선교회와 호주 빅토리아선교회가 국내 선교를 시작함에 따라 1889년에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 기포드, 언더우드, 알렌, 헤론, 데이비스 등이 모여 “美國 北長老會미순及 빅토리아(오스트렐냐 中 一都)미순 併合公議會”⁶⁾를 조직하고 회장에는 헤론이 선출되었고, 서기는 데이비스가 맡았다. 제 2회 공의회 때 마포삼열이 참석하였고, 3, 4차 모임을 가지며 몇 가지 사항들을 논의했으나 빅토리아 선교회를 대변하는 헨리 데이비스가 1890년 4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연합공의회”는 폐지되고 말았다.⁷⁾ 그러다 1892년 남장로교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착수하면서 북장로회선교회와 남장로회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1893년 1월 28일 서울 빈톤 선교사 집에서 “長老會政治를 쓰는 미순公會”(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했다.⁸⁾ 車載明은 〈朝鮮에수敎長老會史記 上〉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一八九三年에 長老會政治를 쓰는 미순公會라稱호는會를組織호얏는디 此會는 京城빈톤의 家에서 組織호얏는디 設立者는 南長老會미순會員 李訥瑞, 全緯廉, 崔義德, 長씨 北長老미순會員 牧師 裴緯良, 씨보, 馬布三悅, 李吉咸, 蘇安論, 閔老雅, 牟三悅 醫師 빈톤 諸氏러라. 此公會에 目的은 朝鮮地

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권 1784-191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423-430.

6) 郭安運 編, 長老教會史典彙集(京城:朝鮮耶蘇敎書會, 1918), 15.

7) Ibid., 15.

8) Ibid., 15-16.

에 更定教會信經과 長老會政治를 使用 하는 聯合教會를 設立 하는 것으로 定하야겠는디 此公會가 各其 所屬미션會에 對하야 勸告權만 잇스나 教會가 長老會의 規則디로 完全히 成立될 時 까지는 全國教會에 對하야 專權으로 治理 하는 上會가 되얏는니라.⁹⁾

1898년 캐나다장로교선교회가 한국선교를 시작함에 따라 이미 앞서 한국선교를 착수한 남북장로교선교회, 호주장로교선교회와 캐나다장로회선교회는 1901년에 함께 모여 “조선야소교장로회공의회”(朝鮮耶蘇教長老會公議會)를 조직했다.¹⁰⁾ 장로회공의회 1901년 회의록 서문에 “한국에는 아직 노회가 없어서 우리는 임시로 장로회공의회라는 전국적인 회의를 마련했다. 이 회의가 앞으로 노회가 될 것이다”고 밝혀 장로회공의회는 노회 설립 전까지 독노회 조직을 위한 일종의 예비기구의 성격을 지녔음을 분명히 했다. 광안련 선교사의 표현을 빌린다면 장로회공의회는 “朝鮮地에 更定教 信經과 장로회政治를 使用하는 聯合教會를 設立”¹¹⁾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901년 장로회공의회는 호주장로교 선교부의 헌의를 받아들여 조선자유장로회 설립을 결의하고 장로 한 사람 이상 있는 지교회 12교회가 있고 임직할 목사 3인 이상이 될 때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하기로 했다.¹²⁾ 장로회공의회는 1901년부터 치리권을 가진 노회 설립을 위한 일종의 준비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차재명은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 上>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主後 一千九百三年 癸巳 是時各處에 信徒가 數多하나 治理會가 現無하므로 宣教師 等이 一 公議會를 組織하야 朝鮮예수교長老會가 完全히 成立될

9) Ibid.

10) 車載明,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 上 (京城: 新門內教會堂, 1928), 17-18.

11) 郭安蓮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15.

12) 1907 Minutes of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And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6.

時期까지 全國教會에 全權 治理하난 上會가 되야쓰니 第一會 會長은 李訥瑞
러라.¹³⁾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새로 세워지는 교회의 성격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성장하고 파송한 모교회(母教會)의 모습을 그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적인 토착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한국에 세워지는 교회는 “福音”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선교사들이 전해 준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의 발전을 교회 설립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에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1905년 1월 25일 마포삼열은 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J. Brown)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북장로교 총회로 하여금 한국인 목회자 안수에 대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때¹⁴⁾ 이들은 새로 선교지에 설립되는 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복음의 토양에 맞는 성격의 교회여야 한다는 확신을 명백히 피력했다. 그것은 마포삼열의 편지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설립될 교회의 성격은 주로 선교사들에 의존되지만, 어느 정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에 의해 채색되고 변화되었다. 선교사들이 믿고 가르치고 그들이 살았던 방식, 그들이 보여 준 삶의 모델, 이 모든 것들이 새로 설립되는 교회의 삶에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배경상 아직 동양적이고, 선교사들과 매우 다른 관점과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례의 본질상 처음부터 전적으로 토착교회(an entirely indigenouse church)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서구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성장하

13) 車載明, 朝鮮예수教長老會史記 上(京城: 新門內教會堂, 1928), 20.

14) S. A. Moffett's Letter to A. J. Brown(Jan., 25), 1905.

면서 한국적 요소와 성격들이 지배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발생해 왔다.¹⁵⁾

마포삼열은 전통과 한국의 실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성격으로 한국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다. 광안련 선교사가 말한대로 그것은 “개신교 신경”과 “장로회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 설립”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1905년 미국 남북장로교회 총회는 한국장로교회 조직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그 해 장로교신교공의회는 1907년에 독노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장로회공의회는 대외적으로 협력과 승인을 이끌어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장로교의 신학적 틀을 제공해주었다. 그 중의 하나가 장로교 신경을 채택한 일이다. 1903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소요리문답(The Shorter Catechism)을 채택했고,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채택했다.

1905년 장로교 공의회는 수개월 전 인도자유장로교회가 채택한 신경을 한국장로교회의 신경으로 채택하자는 신경위원들의 천거를 받아들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2신조를 장로교회의 신조로 채택한 것이다.¹⁷⁾ 1905년 12신조를 채택하기 3년 전인 1902년 9월 17일 제 10차 장로회공의회에서 교회 신조를 준비할 위원을 선정하고¹⁸⁾ 3년의 연구 검토 작업을 거쳐 1905년 공의회에 내놓고 결정하게 된 것이다. 광안련은 〈神學指南〉에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一九〇二年에 朝鮮長老教會公議會가 委員을 選定하여 장추 設立홀 朝鮮長

15) Ibid.

16) 郭安蓮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15.

17) 소요리문답과 12신조를 채택함으로써 선교사들은 새로 설립되는 한국장로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준 셈이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존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국장로교회의 신경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 1907 Minutes of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And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6.

老會에서 使用할 信經을 準備하라 ㅎ 該 委員들이 三年間 各國教會 信經을 收合 ㅎ야 比較도 ㅎ고 研究도 ㅎ였 ㄴ니라.¹⁹⁾

신조작성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02년에 조선장로교회공의회에서 선정한 위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02년에 공의회에서 선정된 신경위원들에 대한 이해는 “12신조”의 선택까지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장로회공의회에서 선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1902년 장로회공의회에서 새로 조직될 조선장로교회를 위한 신조를 작성하는 책임을 맡은 위원회는 교회 표준조례번역위원회(Committee on Translation of Church Standards)였다. 1905년 채택되기 전 적어도 2-3년 동안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쳤음을 고려할 때 당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경에 대한 연구 검토 작업을 진행하던 1904년 당시 위원회 위원은 베어드(W. M. Baird, 裴偉良, Ph.D., 1862-1931), 게일(James S. Gale, 奇一, D.D., 1863-1937), 레이놀즈(W. D. Reynolds, Jr., 李訥瑞, 1867-1951),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윈두우, D.D., 1859-1916), 그리고 푸트(W. R. Foote, 富斗一, 1869-1930)였다. 푸트와 레이놀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었다. 언더우드는 뉴욕대학과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 4월 5일 내한한 개척선교사였고, 베어드는 1885년 하노버 대학을 졸업하고 맥코믹신학교에 진학하여 1888년 마포삼열과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1년에 입국하였다. 게일은 1888년 토론토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12월 15일 토론토대학 YMCA 선교사로 내한했다가 1891년 토론토대학 YMCA 선교회가 해체되면서 북장로교선교회로 소속을 옮겼다. 남장로회선교회 소속 레이놀즈는 1887년 버지니아 햄펀시드니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남장로교 소속 신학교인 버지니아 리취몬드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 내한하였다. 그는 잠시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 라틴어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수재였다. 캐나다 장로회 소속 푸트는 아케이티아 대학을 거쳐

19) 곽안련,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 〈神學指南〉 2권 2호 (1919), 75-76.

1898년 헬리팍스의 파인힐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9월 6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한 선교사였다. 이들 다섯 명은 한국장로교를 대변하는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이들은 상호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이들은 대단한 학구열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긴 선교사들이었고, 특별히 탁월한 어학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었다. 둘째, 이런 이유로 이들 모두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했다. 셋째,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선교사들이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로 내한하기 전 이미 부흥운동을 경험한 선교사였고, 베어드는 승실학교 교장으로 1907년 승실대학을 평양대부흥운동의 발흥지 가운데 하나로 만든 주역이었으며, 게일 역시 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으로 파송되기 전 D. L. Moody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부흥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푸트와 레이놀즈도 예외는 아니다. 레이놀즈는 미국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를 소개할 정도로 미국의 부흥운동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선교사였다.

넷째, 이들 모두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연합운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베어드는 장로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학창시절부터 마펫과 다른 급우 1명 등 세 사람이 학생자원운동에 참여하면서 연합운동의 중요성을 배웠고, 실제로 승실중학과 승실대학을 감리교 베크 선교사와 함께 이끌면서 한국선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승실대학을 부흥의 요람으로 만들었고, 부흥을 감리교 안으로 확산시키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게일은 토론토대학시절부터 교파를 초월한 YMCA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YMCA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화란개척교회 출신으로 북장로교선교회 소속이면서 남장로교선교회, 캐나다장로교선교회, 호주장로교선교회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해주었고, 아펜젤러와의 감리교와 협력을 통해 성경번역위원회와 예수성교서회를 태동시켰고, 1905년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General Council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Missions in Korea)를 결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선교사였다.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의 증언대로 “그

는 결코 종파적이거나 계급적이거나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가 모든 인종, 민족, 계급, 연령,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의 존재의 모든 흐름은 연합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⁰⁾

레이놀즈 선교사는 평양신학교 조직신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성서번역을 위해 연합사업을 전개했고, 1893년 조선장로교공의회가 조직될 때 장로교 안에 연합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고, 심지어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운동을 할 때인 1906년 6월 26일 “이제는 한국 그리스도교회라고 부를만한 한국적인 교회를 세울 시기가 되었다”²¹⁾며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연합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1898년에 입국한 푸트 역시 당시 영미에서 일고 있던 부흥운동과 연합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한국에 파송된 4개의 장로교선교회가 각기 자신들의 교단을 설립하지 않고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²²⁾

이들 위원들은 그동안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관련신경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주요 신경으로 열거했던 신경은 고대 신경으로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의 신경으로는 스위스와 불란서 개혁파들이 사용했던 “취절란디신경,” 화란개혁교회와 사용하던 “돌트신경,” 독일 개혁파들이 사용했던 “하이델베르그 신경,” 영국 국교의 “39개조 신경,” 그리고 영국과 미국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경”이 그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5개의 신경 중에서 4개가 칼빈주의 신경이었다.²³⁾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경을 준비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보통 당시 성서번역위원들이 했던 것처럼 각 위원들에게 위 신경 중 일부를 각자 맡아 연구 검토한 후 함께 모여 각기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20) L. H. Underwood,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21) 郭安全, 韓國教會史 (서울: 기독교서회, 1973), 131.

22) 이들이 연합운동에 적극적이었지만 흔히 WCC가 말하는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은 아니었다. 감리교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서로 함께 연합운동을 했지만 1934년 감리교가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은 후에는 감리교와의 연합활동을 중단하였다.

23) 곽안련,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 67.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행히 이들이 각 신경을 연구 검토 할 즈음에는 각 신조들에 대한 해설서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문을 입수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연구논의 과정중 이들 위원들은 1904년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경, 곧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2신조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조선교회 형편에 제일 적합”²⁴⁾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右 公議會 委員 等이 各種 信經을 參考 研究 ㅎ고 새로 信經을 制定코져 ㅎ였는디 適會 새로 組織 ㅎ는 印度國聯合長老會 信經을 엇어 본즉 朝鮮教會 形便에 第一 適合 ㅎ는 지라.²⁵⁾

이런 이유로 신경위원들은 새로 신조를 작성하지 않고 1905년 장로교공의회 때 1904년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를 조선장로교회 신경으로 채택할 것을 천거한 것이다. 신경위원들은 12신조를 장로회공의회에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本 委員 等이 새로 信經을 制定 ㅎ지 아니 ㅎ고 萬國長老會에서 前부터 使用 ㅎ는 信經과 該 信經에 對 ㅎ는 解釋과 信經道理에 對 ㅎ는 公布와 宣敎各地方에서 適用 ㅎ는 信經을 比較 ㅎ야 朝鮮 예수敎長老會 形便에 適合 ㅎ는 信經을 擇 ㅎ는 거시 可 ㅎ는 줄노 認定 ㅎ였스오며 今에 提出 ㅎ는 信經은 幾個月前에 새로 組織 ㅎ는 印度國長老會에서 採用 ㅎ는 信經과 同一 ㅎ니 吾儕가 此 信經을 報告 ㅎ時에 希望 ㅎ는 바는 此 信經이 朝鮮 印度兩國長老會의 信經만 될 뿐 아니라 亞細亞 各國長老會의 信經이 되야 各敎會가 互相聯絡 ㅎ게 되기를 顯望(웅망) ㅎ는다.²⁶⁾

1905년 조선장로회공의회 회의록에 있는 위원들의 보고에서 우리는 몇

24) Ibid., 77.

25) Ibid.

26) Ibid.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성의 장로교 신경을 연구 검토했다는 사실, 둘째, 비교 검토를 통해 조선장로교회의 형편에 적합한 신앙고백을 택하려고 했다는 사실, 셋째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경은 조선장로교회의 형편에 맞는 신경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장로교회의 신경으로도 손색이 없는 신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곽안련선교사가 1918년 <장로회사전취집>에서 기술하고, 1919년 <신학지남>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은 12신조가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심지어 “古代信經 中에 우리 信經보다 不足한 거시 만흐며 웨스민스더 信經이라도 此 信經보다 優勝호다고 호기 어려오니라”²⁷⁾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가 곽안련 선교사와 동일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모 교회가 수백년 동안 준수해오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보다도 인도 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를 더 훌륭한 신앙고백이라고 여긴 이유는 “現 時代形便에도 適當하고 聖經에도 適合”한 “貴한 寶物”이라는 전제가 그 배후에 있었다.²⁸⁾ 장로교의 전통과 한국교회의 형편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신앙고백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1905년 1월 미국 북장로교총회에 인준을 요청하면서 편지에서 마포삼열이 밝혔던 “장로교 전통”과 “한국교회의 실정”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돌트 신조, 웨일즈 칼빈주의신조를 택하지 않고 12신조를 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선교지의 상황을 반영하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05년은 한국선교를 시작한지 불과 21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로 볼 때 유약한 교회였다. 1907년에 제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전 한국교회를 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한국교회 안에는 신학적 성숙

27) Ibid., 81.

28) Ibid.

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태동되면서 분명한 신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는 신조로 이미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인도가 같은 동양권에, 같은 장로교회, 또한 깊은 연구와 검토 작업을 거쳐 채택한 신조라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게다가 인도연합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는 매우 깊은 영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도연합교회가 12신조를 택할 때 인도에는 인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것도 인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1906년 9월 서울선교사 사경회 동안에 하워드 애그큐 존스톤이 웨일즈와 인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후 웨일즈와 인도부흥의 소식을 한국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전해 주었다. 많은 교회사가들은 하워드 애그뉴 존스톤이 전해준 인도카시부흥운동의 소식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발흥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은 아시아 장로교회 간의 연합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타 교단과의 연합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한국에 파송된 4개의 장로교 선교회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한다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1905년 당시는 감리교와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를 만들어 상호 협력과 연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을 때였다. 이것은 교단적 벽이 적지 않았던 당시 미국이나 영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것은 곡안련의 글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 “12신조”를 채택한 인도장로교회도 “연합장로교회”였고, 미국복장로교회해외선교부 브라운은 1907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교회를 “연합장로교회”²⁹⁾라고 부르고 있다.

넷째, 당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16년의 돌트신조,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신조, 그리고 1823년의 웨일즈칼빈주의 신조 이후 장로교 안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화란의 경우 개혁파 경건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한국에 파송된 남북 호주 빅토리아

29) A. J. Brown, *History of the Christian Miss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김인수 역 (서울: 클란출판사, 2003), 101.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경우 존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경우 미국 미국장로교회 안에서도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 1903년 이미 개정작업을 끝낸 뒤였고,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 역시 처음 작성된 후 1859년 웨일즈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8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외 선교 열이 놀랍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한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선교지의 복음전도를 위해 고민하였던 흔적들을 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의 배경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구학파 출신이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고 미국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파주의에 흐르지 않았다. 한국선교를 위해 이들이 4개의 장로교단이 서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 감리교와 연합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절대다수가 영미에서 일고 있던 무디 부흥운동과 학생자원운동을 비롯한 부흥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고 파송받은 이들이었다. 특별히 신조번역위원으로 섬겼던 베어드, 언더우드, 게일, 푸트, 레이놀즈, 사이드보텀, 앵겔, 그리고 1907년에 추가된 피득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무디 부흥운동과 학생자원운동이 보여주듯 19세기 부흥운동과 해외선교운동이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점에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쩌면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들이 바로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선교사들이었다.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사경회 운동이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것도 구학파 신학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 열려 있던 맥코믹신학교 출신들이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구학파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 영향을 받아 한국선교를 위해서는 교파주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1905년 인도 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가 한국 장로교회에 가장 적합하다는 확신 속에 위원장 레이놀즈를 비롯한 위원들은 1907년 9월 조선장로교회 조직 때 이 신조가 채택될 것을 대비하여 신조를

번역하고 이를 다시 다듬으며 준비를 해 놓았다. 교회표준조례번역위원회(Translation of Native Church Standards) 위원장 레이놀즈는 조선예수교장로회를 위한 신조를 번역하고 팜프렛 형태로 인쇄하여 준비한 후 1907년 9월 13일 숭실중학교 채플에서 회집한 제 15차 장로회공의회 때 회원들 앞에 보고했고, 공의회가 이 보고를 받았다.³⁰⁾ 동 위원회는 공식 중인 상기 위원회 북장로교 선교사 사이드 보텀(Richard H. Sidebotham, 1874-1909) 대신 같은 북장로교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A. A. Pieters)를 선임하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 조지 앵겔(George O. Engel, 王吉志, 1864-1939) 대신 제임스 게일을 선임하였다.³¹⁾ 사이드보텀과 앵겔 역시 평양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였다.³²⁾ 1907년 장로회공의회 회장은 마포삼열이었고, 서기는 레이놀즈였다. 1907년 장로회공의회는 9월 13일에 시작하여 16일에 끝났다.³³⁾ 그리고 다음날 1907년 9월 17일 오후 2시 독노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다. 장로회공의회가 독노회 조직에 앞서 열린 것은 일종의 독노회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새로 조직된 독노회는 2년 전 1905년 장로회공의회가 이미 채택하고, 다시 1907년 장로회공의회에서 받기로 한 12신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로 채택한 것이다. “공의회의 톱한 대로 장로회회 신정위원 리늘셔씨가 보고하매 편하설씨가 일련만 칙용하야 검사하기로 동의하야 가로 결명하다.”³⁴⁾ 이와 관련하여 곽안련 선교사가 표현한 것처럼 “一九〇七年에 總老會가 臨時로 一年間 採用”³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왜 1년만 채용하기로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듬해 열린 제 2회 독노회 때 정식으로 채택하였는지 독노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1918년 곽안련은 <장로회사전취집>에서 “一九〇

30) 1907 Minutes of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And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9.

31) Ibid., 10.

32) Ibid., 35-36.

33) Ibid., 17-18.

3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회 독노회록, 8.

35) 郭安蓮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83.

八年에 其別委員의 報告”를 받고 “小要理問答을 朝鮮教會의 憲法으로 作定”³⁶⁾하였다고 기록, 1908년 제 2회 독노회 때 “12신조”를 정식으로 채택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一九〇八年에 特別委員(牧師 韓錫晉 馬布三悅 氏)의 報告에 依하여 總老會가 此 信經을 確實히 採用하였으나 會錄에는 記載되지 못하였나니라.³⁷⁾

이로서 12신조가 한국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신조로 자리를 잡았다.

II. 1907년 제 1회 독노회 때 채택한 조선장로교 12신조

12신조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여기 12신조 전문을 제시한다. 12신조 영문은 이미 1907년 독노회록 영문판에 삽입되었고, 광안련 선교사의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부록으로 삽입되었다.³⁸⁾ 황규범 교수가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 원문을 어렵게 입수하여 “12신조”와 “인도연합장로교회 신조”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한국교회 신조사 연구에 참으로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광안련 선교사가 이미 밝힌 대로 서문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조가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아래 서언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서언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서약자들의 차이다. 인도 신경에 없는 집사를 목사 강도사 장로에 이어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인도 신경 서문에 있는 돌트 신조와 웨일즈 칼빈주의 신경을 빼

36) Ibid., 84.

37) Ibid., 83.

38) 1907 *Minutes of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and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36-39;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326-329.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 원문은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205-209에 잘 나타나 있다.

고 교회가 마땅히 가르칠 모 교회의 신경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국한 시키고 있다. 셋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한국교회 문답으로 확정시킨 일이다.

아래 원문에서 보여주듯이 본래 인도연합장로교회의 신조 서문에 있는 Welsh Calvinistic Confession of faith, the Confession and Canon of the Synod of Dort를 제외시키고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만을 유지하였고, 인도연합장로교회 신조에 없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교회 문답으로 추가시켰다.³⁹⁾ 필자는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와 1905년 장로회공의회가 채택하고 1907년 독노회 때 한국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원문으로 대조를 해보았다. 대조한 결과 “서언”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12신조는 인도연합장로교신경과 모두 정확히 일치했다.

서 언(Preamble)

“서언” 인도 연합장로교회 신조원문

Preamble

The Presbyterian Church in India adopting the following as its Confession of Faith, to be subscribed by ministers, licentiates, and elders, does not thereby reject any of the doctrinal standards of the parent churches, but, on the contrary, commends them—especial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Welsh Calvinistic Confession of Faith, and the Confession and Canons of the Synod of Dort—as worthy exponents of the Word of God, and as systems of doctrine to be taught in our Churches and seminaries.

“서언” 1907년 한국독노회가 채택한 12신조 원문

39) 황계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211-212.

Preambl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dopting the following as its Confession of Faith, to be subscribed by ministers, licentiate, elders and deacons, does not thereby reject any of the doctrinal standards of the parent churches, which established the church in Korea, but on the contrary commends them— especial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s worthy exponents of the Word of God, and as systems of doctrine to be taught in our Churches and seminaries; and adopts as the Catechism of the Church,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1907년

서언

대한 장로교회에서 이아래 기록한 몇가지 도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와
및 인허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텅중케 하는거시 대한 교회를 설
립한 본 교회의 그르친바 취지와 표준을 버림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칙주는 성경을 밝히 히석한
척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 학교에서 맛당히 그르칠 거스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요리 문답 적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나니라.

1조(성경관)

1.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an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 <12신조 원문>

一.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형홀 본분의 확실한 법례
인디 다만 이밖씩 업나니라. <12신조 번역문>

2조(신론)

2. There is but one God, and He alone is to be worshipped. He is a Spirit, self-existent, omnipresent yet distinct from all other

spirits and from material things;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truth and love. <12신조 원문>

二. 하느님은 홀노 하나이시니 오직 이만 경배할거시라 하느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무소부직하며 다른 신과 모든 형용물과 부동하시며 그 계신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더할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아니하시니라. <12신조 번역문>

3조(삼위일체)

3. In the Godhead there are three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12신조 원문>

三. 하느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디 이 삼위는 혼 하느님이시니 원테도 같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이시니라. <12신조 번역문>

4조(창조론)

4.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were created by God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are so preserved and governed by Him, that while He is no way the author of sin, He worketh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and they serve the fulfillment of His wise and good and holy purposes. <12신조 원문>

四. 하느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유형물들과 무형물들을 창조하셨고 보호할야 주창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명하신 뜻대로 행하시 그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목덕을 일우게 하시나 그러나 결단코 죄를 내신이는 아니시니라. <12신조 번역문>

5조(인간창조)

5.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All men have the same origin, and are brethren. <12신조 원문>

五. 하느님이 사롬을 남너로 지으시디 즈귀의 형상을 의지하샤 지식과 의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샤 동물 우에 주장하게 하섯스니 모든 세상 사롬이 다 혼 근원에서 낫슨즉 혼 동포형테니라. <12신조 번역문>

6조(타락론)

6. Our parents, being free to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and being tempted, sinned against God; and all mankind descending by ordinary generation from Adam, the head of the race,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To their original guilt and corruption, those capable of so doing have added actual transgressions. All justly deserve His wrath and punishment in this present life and in that which is to come. <12신조 원문>

六.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퇴홀 자유능이 잇섯는디 필경 시험을 받아 하느님의 범죄흔지라 모든 인종들이 그 시조 아담으로브터 범상흔 세디를 니여 노력움을 인하여 그 범죄흔속에 참여하여 흠의 싸젓스니 사롬의 원죄와 밋상흔 성품을 맞은외에 범죄홀줄 아나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잇스니 모든 사롬이 금세와 리세에 하느님의 공변된 진노와 형벌을 맞는거시 맞당하니라. <12신조 번역문>

7조(구원론)

7. To save men from the guilt, corruption and penalty of sin, and to give them eternal life, God in His infinite love sent into the world His eternal and only-begotten Son, the Lord Jesus Christ, in whom alone God has become incarnate, and through whom alone men can be saved. The eternal Son became true man and so was and continueth to be true God and true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 ever.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yet without sin. For sinful men,

He perfectly obeyed the law of God, and offered Himself a true and perfect sacrifice to satisfy divine justice and reconcile men to God. He died on the cross, was buried,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God, where He maketh intercession for His people, and whence He shall come again to raise the dead and to judge the world. <12신조 원문>

七. 하느님이 사롬을 무한히 사랑하샤 죄를 속하시고 상흔 성품을 곳치시고 형벌을 면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라고 즈기의 영원흔 독싱즈 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샤 육신을 일우게 하신지라 이 예수의 몸밧게는 하느님씩셔 육신을 넣은거시 업느니라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사롬이 능히 구원을 엿는지라 그 영원흔 아들이 춤 사롬이 되샤 전과 지금과 영원 까지 혼 위에 각 다른 두 성품을 겸하엿스니 춤 하느님이시오 춤 사롬이시라 성신의 권능으로 잉티하샤 동정녀 마리아의게 낫스되 오직 죄는 업는자라 죄인을 디신하야 하느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춤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샤 하느님의 공의에 덕당하게 하시며 사롬으로 하여곰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도라가시고 못치섯다가 죽은 가온디셔 삼일만에 부활하샤 하느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빅성을 위하야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셔 지강하샤 죽은 자를 다시 살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12신조 번역문>

8조(성령론)

8. The Holy Spirit, who proceedeth from the Father and the Son, maketh men partakers of salvation, convincing them of their sin and misery, enlightening their minds in the knowledge of Christ, renewing their wills, persuading and enabling them to embrace Jesus Christ, freely offered to them in the Gospel, and working in them all the fruits of righteousness. <12신조 원문>

八.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신씩셔 사롬으로 하여곰 죄와 환난을 씨듯게 하시며 믿음을 북게하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뜻을 새롭게 하시고 권면하샤 복음에 기록흔대로 갑 업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밧게 하시

며 의로운 열미를 밋게 하샤 구원을 엇게 하시니라. <12신조 번역문>

9조(예정론)

9. While God chose a people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they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before Him in love; having foreordained them unto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un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ich He freely bestowed on them in the Beloved; He maketh a full and free offer of salvation to all men, and commandeth them to repent of their sins,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to live a humble and holy life after His example and in obedience to God's revealed will. Those who believe in Christ and obey Him are saved, the chief benefits which they receive being justification, adoption into the number of the sons of God, sanctification through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and eternal glory. Believers may also in this life enjoy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In his gracious work, the Holy Spirit useth the means of grace,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12신조 원문>

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백성을 택 하샤 사랑함으로 그 압해서 거룩하고 흠이 업게 하시고 그 깃브신 뜻대로 더 희를 미리 작명하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스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더희의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시로되 오직 모든 세상 사룸의게 디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갑 업 시 주시라하야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기하고 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밋고 의지하야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야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스니 그리스도를 밋고 복종한자는 구원을 엇는지라 더희가 밋는바 특별한 리익은 의가 잇게 하심과 의즈가 되어 하나님 아들들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밋는자는 이세상에서도 구원얻는줄을 확실히 알고 깃버홀지라 성신께서 은혜

의 직분을 헝헝실체에 은혜베프시난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 나라. <12신조 번역문>

10조(성례론)

10. The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ar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Baptism is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is a sign and seal of our union to Christ,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and of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It is to be administered to those who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to their children. The Lord's Supper is the partaking of the bread and of the cup as a memorial of Christ's death and is a sign and seal of the benefits thereof to believers. It is to be observed by His people till He come, in token of their faith in Him and His sacrifice, of their appropriation of its benefits, of their further engagement to serve Him, and of their communion with Him and with one another. The benefits of the Sacraments are not from any virtue in them, or in him that doth administer them, but only from the blessing of Christ and the working of His Spirit in them that by faith receive them. <12신조 원문>

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세례는 성부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로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맺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례는 그리스도를 믿는자와 및 그의 자녀들의게 헝헝거시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시니 이는 믿는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리익을 밋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례는 주의 오실때 까지 주의 복성이 헝헝지니 이로 표하는 거슨 주를 밋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괴서 좃차나는 리익을 밋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밋 여러 교우로 더브러 교통함이라 성례의 리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베프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

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밋 밋음으로써 성례를 밋는자가온디 계신 성신의
 형함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2신조 번역문>

11조(교회론)

11. It is the duty of all believers to unite in Church fellowship, to observe the sacraments and other ordinances of Christ, to obey His laws, to continue in pray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to meet together for His worship, to wait upon the preaching of His word, to give as God may prosper them, to manifest a Christlike spirit among themselves and towards all men, to labour for the extension of Christ's kingdom throughout the world, and to wait for His glorious appearing. <12신조 원문>

十一. 모든 밋는자의 본분은 그 교회 가온디서 서로 합심되여 그리스도의 성례와 다른 법례를 직히며 주의 법을 복종함며 홍상 기도함며 주일을 거룩하게 직히며 주를 경비함기 위함야 힘씨 모히며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즈세히 드르며 하나님 씨서 더희로 함여곰 풍성하게 함심을 좇차 연보함며 그리스도의 믿음과 갓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며 쏘흔 모든 사룸이게도 그와갓치 흘거시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함야 힘쓰며 주씨서 영광 가온디서 나타나심을 브라고 기드릴지니라. <12신조 번역문>

12조 부활심판(내세론)

12. At the last day, the dead shall be raised, and all sh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shall receive according to the deeds done in the present life whether good or bad. Those who have believed in Christ and obeyed Him shall be openly acquitted and received into glory; but the unbelieving and wicked, being condemned, shall suffer the punishment due to their sins. <12신조 원문>

十二. 무즈막 날에 죽은자가 부활함을 밋고 그리스도의 심판함시는 보좌

압해 서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헝헝바를 썩라 보응을 밧을거시니 그리스도를 밧고 복종헌자는 현저히 사흙을 잇고 영광 가운데로 마자드리는바 되려니와 오직 밧지아니흐고 악을 헝헝하는 자는 덩죄흙을 넘어 그 죄의 덕당한 형벌을 밧을지니라. <12신조 번역문>

인가식

I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is Church as based on and in accord with the Word of God; and I declared it to be the confession of my faith.

내가 이 교회의 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야 세운줄노 밧스오며 곶나의 신경으로 삼고 공포흐노라.

위 12신조는 제 1조에서 성경관을 다루고, 제 2조에서 신문을, 제 3조에서 삼위일체를, 제 4조에서 창조론을, 제 5조에서 인간창조를, 제 6조에서 인간 타락론을, 제 7조에서 구원론을, 제 8조에서 성령론을, 제 9조에서 예정론을, 제 10조에서 성례론을, 제 11조에서 교회론을, 그리고 제 12조에서 부활과 심판의 내세론을 다루고 있다. 이들 12개의 신조들은 각기 기독교 2천년 동안 기독교회가 소중하게 견지해오던 신앙을 각 항목별로 선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역사적 칼빈주의 관점에서 보면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12신조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훌륭한 신조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본교리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성경의 권위”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성령론,” “부활과 심판”이라는 정통신학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요체가 매우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돌트신조, 웨스트민스터신조,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매 조항마다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넷째, 선교지의 상황을 고려한 훌륭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12신조에는 역사적 칼빈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대 문화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

급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선교지에 세워진 한국장로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도 적절하고 적합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를 채택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12신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광안련 선교사는 1919년 신학지남에 “조선야소교장로회신경”이라는 논문을 통해 1907년 “12신조”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1. “各國信經 中에 朝鮮長老教會信經보다 더 貴하고 博한 거시업 니라.”⁴⁰⁾

2. “우리 信經은 萬國長老會信經中에 最好 한 거시니 웨스민스터 信經과 其他有名 한 七信經보다 나흐니 우리 信經은 簡短 하고 明白 해야 알기가 容易 한 거시라.”⁴¹⁾

3. “朝鮮信經이 簡短 한 幼稚 한 信經이 아니오 完全 한 信經이며 此보다 優勝 한 信經이 世上에 업고 古代 信經 中에 우리 信經보다 不足 한 거시만 한 며 웨스민스터 信經이라도 此 信經보다 優勝 한 다고 한 기어려오니라. 此 信經은 現時代形便에도 適當 한 고 聖經에도 適合 한 니 귀한 寶物이로다.”⁴²⁾

1902년 한국에 입국해서 평양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신조채택과정을 잘 알고 있던 광안련 선교사는 12신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2신조가 비록 간단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조와도 차별화되며, “現時代形便에도 適當 한 고 聖經에도 適合”⁴³⁾하다는 것이다.⁴⁴⁾

40) 광안련,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 75.

41) Ibid., 80.

42) Ibid., 81.

43) Ibid.

44) 광안련은 동일한 견해를 여러 경로를 통해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시카고대학교 철학박사 학위 논문인 자신의 저서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144-145. 광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譯 (서울: 기독교서회, 1994), 170에 언급하고 있다.

III. 1934년 “12신조”의 재번역과 용어상의 개정 작업

1907년에 채택한 교회 정치는 “總會에서 政治編輯委員會를 選定 하여 政治와 勸懲條例 禮拜模範”⁴⁵⁾을 1919년 총회에서 채용하였지만 12신조의 경우는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25년이 지난 1932년 당시 사용하고 있던 “현 장로회 신경과 요리문답”이 일부 번역상 약간의 오류가 발견 되는데다 1907년 조선교회 설립 초에 번역한 것이라 당시 표준어법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생겨 개정 수정을 위해 15인 위원을 선정했다. 1934년에 출간된 개정 헌법 “서언”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一九三二年 總會에서 長老會政治 第二十一章 三條에 依하여 委員 十五人을 擇하여 改正修正을 命하였으므로 該委員들이 本改譯文을 一九三三年 總會 앞에 報告한 結果 總會의 承認을 得하여 茲에 改譯을 出版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本來의 舊譯信條와 要理問答代身으로 使用할 元憲法이 되었다.⁴⁶⁾

15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16인이다.⁴⁷⁾ 현재 사용하는 헌법 책 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16명이다. 1934년 협법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편집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1932년 9월 10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21회 총회 기간 중 총회에 올린 청원(請願) 가운데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번역위원 곽안련시가 장로회신도와 소요리문답을 개역한바 검열청원”⁴⁸⁾ 건을 정치부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정치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였다:

미국장로회연합선교번역회 대표 곽안련시의 청원한 성경요리문답급신도 개역한 것을 교열한 위원 십인을 선명하여 교열 채용케 하여 달나는 청원은 정

45) 곽안련,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 79-80.

46) 郭安連, 朝鮮예수교長老會 憲法 (평양: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34), “序言.”

4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3), “서문.”

4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21회 총회록, 10.

치 데 二十一장 三도에 의하여 특별위원 十六인 마포삼열, 김석창, 고한규, 김성택, 장흥범, 강운림, 럽봉남, 권찬영, 리자익, 업아력, 강학린, 홍종필, 남궁혁, 구레인, 권임함, 윤하영 제 시를 택하여 一년간 연구하여 래 총회에 보고 케 하실 일이오며.⁴⁹⁾

총회가 선정한 요리문답교정위원 16인은 1차 모임을 가졌다. 1933년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 22회 총회가 평북선천읍에서 열렸을 때 위원장 마포삼열은 그동안의 진행을 보고하고 1년간 더 연기해 줄 것을 총회에 요청하면서 “16인이 비준”하면 즉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쇼요리문답과 신경교정위원장 마포삼열씨 보고는 여좌히 채용하다. 본위 원등이 一차 회집하여 쇼요리문답은 거의 필하고 신경은 아즉 완료치 못하 옻싸오니 一년만 더 연기하여 주시고 우 二책을 완료한 후에는 본 위원 十六인이 비준하여 채용하는 즉시로 출판 권리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 이다.⁵⁰⁾

1933년 총회가 청원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번역된 12신조를 포함한 1934년 수정위원개정재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출판되어 보급되었다.⁵¹⁾ 1902년 장로회공의회에서 위원들이 선임되어 3년의 작업을 거쳐 1905년 공의회에서 채택하고 다시 2년간 신조를 번역하고 팜플렛 형태로 인쇄하여 1907년 독노회에서 채택되고, 다시 번역하기까지 게일, 베어드, 레이놀즈, 시아드보텀, 푸드, 앵겔, 마포삼열, 곽안련, 구레인, 업아력을 포함한 선교사들과 남궁혁을 포함한 13인의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한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1907년 첫 채택한 12신조와 1934년 맞춤법에 따라 재번역한 “12신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9) Ibid., 50.

5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22회 총회록, 69.

51) 郭安連, 朝鮮예수교長老會 憲法 (평양: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34).

신조서언(信條緒言)

서문

대한 장로교회에서 이아래 기록한 몇가지 도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와 및 인허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텅종케 하는거시 대한 교회를 설립한 본 교회의 그르친바 취지와 표준을 브림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쇼척주는 성경을 밝히 히석한 척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 학교에서 맛당히 그르칠 거스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요리 문답 적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나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敎長老會)에서 이하(以下)에 기록(記錄)한 몇가지 조목(條目)을 목사(牧師)와 강도사(講道師)와 장로(長老)와 집사(執事)로 하여금 승인(承認)할 신조(信條)로 삼을 때에 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敎長老會)를 설립(設立)한 모교회(母教會)의 교리덕표준(敎理的標準)을 바리려함이아니오 오히려 찬성(贊成)함이니 특별(特別)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信道揭要書)와 성경대소요리문답(聖經大小要理問答)은 성경(聖經)을 밝히 해석(解釋)한 책(冊)으로 인정(認定)한 것인즉 우리 교회(教會)와 신학교(神學校)에서 맛당히 가라칠것으로 알며 그 중(中)에 성경소요리문답(聖經小要理問答)은 더욱 우리 교회문답책(教會問答冊)으로 채용(採用)하는 것이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1조

一.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힘힐 본분의 확실한 법례 인디 다만 이밖의 업나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一. 신구약성경(新舊約聖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信仰)과 본분(本分)에 대(對)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法則)이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2조

二. 하나님은 홀노 하나이시니 오직 이만 경비할거시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다른 신과 모든 형용물과 부동하시며 그 계신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디하시며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아니하시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二. 하나님은 한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敬拜)할것이니라 하나님은 신(神)이시니 자연(自然)히 계시고 무소불재(無所不在)하시며 다른 신(神)과 모든 물질(物質)과 구별(區別)되시며 그 존재(存在)와 지혜(智慧)와 권능(權能)과 거룩하심과 공의(公義)와 인자(仁慈)하심과 진실(眞實)하심과 사랑하심에 대(對)하여 무한(無限)하시며 무궁(無窮)하시며 변(變)치아니하시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3조

三.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니 원테도 같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이시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三.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삼위(三位)가 계시니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신(聖神)이신대 이 삼위(三位)는 한 하나님이라 본체(本體)는 하나이오 권능(權能)과 영광(榮光)이 동등(同等)이시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4조

四.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유형물들과 무형물들을 창조하셨고 보호하시며 주장하시며 모든 거슬 지극의 명하신 뜻대로 행하시며 그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목덕을 일우게 하시나 그러나 결단코 죄를 내신이는 아니시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四.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權能)의 말씀으로 창조(創造)하시 보존(保存)하시고 주장(主張)하시나 결(決)코 죄(罪)를 내신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自己) 뜻의 계획(計劃)대로 행(行)하시며 만유(萬有)는 다 하나님의 선(善)하시고 지혜(智慧)롭고 거룩하신 목덕(目的)을 성취(成就)하도록 역사(役事)하나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5조

五.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던 조그의 형상을 의지하사 지식과 의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사 동물 위에 주장하게 하셨스니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한 근원에서 낫스즉 한 동포형제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五.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男女)로 지으시대 자기(自己)의 형상(形像)대로 지식(智識)과 의(義)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生物)을 주관(主管)하게 하셧으니 세상(世上) 모든 사람이 한 근원(根源)에서 낫스즉 다 동포형제(同胞兄弟)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6조

六.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퇴홀 자유능이 잇섯는디 필경 시험을 밧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모든 인종들이 그 시조 아담으로부터 범상한 세디를 니여 노력음을 인하야 그 범죄혼속에 참여하야 흠의 싸젓스니 사람의 원죄와 밧 상한 성품을 밧은외에 범죄홀줄 아나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잇스니 모든 사람이 금세와 리세에 하나님의 공변된 진노와 형벌을 밧는거시 맛당하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우리의 시조(始祖)가 선악간(善惡間) 택(擇)할 자유능(自由能)이 잇었는대 시험(試驗)을 밧아 하나님께 범죄(犯罪)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생육법(普通生育法)에 의(依)하야 출생(出生)하는 모든 인종(人種)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犯罪)에 동참(同參)하야 타락(墮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原罪)와 밧 부패(腐敗)한 성품외(性品外)에 범죄(犯罪)할 능(能)이 잇는 자(者)가 일부러 짓는 죄(罪)도 잇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今世)와 래세(來世)에 하나님의 공평(公平)한 진노(震怒)와 형벌(刑罰)을 밧난 것이 맛당하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7조

七. 하나님은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사 죄를 속히시고 상한 성품을 곳치시고 형벌을 면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라고 조그의 영원한 독심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육신을 일우게 하신지라 이 예수의 몸밧게는 하나

넘피셔 육신을 낳은거시 업니라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사름이 능히 구원을 얻는지라 그 영원한 아들이 춤 사름이 되샤 전과 지금과 영원 까지 혼 위에 각 다른 두 성품을 겸하였스니 춤 하느님이시오 춤 사름이시라 성신의 권능으로 잉태하샤 동정녀 마리아의게 낳스되 오직 죄는 업는자라 죄인을 디신하야 하느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춤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샤 하느님의 공의에 덕당하게 하시며 사름으로 하여곰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시랴고 십자가에 도라가시고 못치섯다가 죽은 가운데서 삼일만에 부활하샤 하느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야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서 직강하샤 죽은 자를 다시 살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七. 인류(人類)의 죄(罪)와 부패(腐敗)함과 죄(罪)의 형벌(刑罰)에서 구원(救援)하시고 영생(永生)을 주고자하샤 하나님께서 무한(無限)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永遠)하신 독생자(獨生子) 주(主)예수그리스도를 세상(世上)에 보내섯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肉身)을 일우웠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救援)을 얻을 수 잇나니라 그 영원(永遠)한 아달이 참사람이 되샤 그 후(後)로 한위(位)에 특수(特殊)한 두 성품(性品)이 잇어 영원(永遠)토록 참하나님이시오 참사람이시라 성신(聖神)의 권능(權能)으로 잉태(孕胎)하샤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의게 낳스되 오직 죄(罪)는 업는자시라 죄인(罪人)을 대신(代身)하야 하나님의 법(法)을 완전(完全)히 복종(服從)하시고 몸을 드러 참되고 온전(穩全)한 제물(祭物)이 되샤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만족(滿足)하게 하시며 사름으로 하여곰 하나님과 화목(和睦)하게 하시랴고 십자가(十字架)에 죽으시고 못치섯다가 죽은 가운데서 삼일(三日)만에 부활(復活)하샤 하나님 우편(右便)에 승좌(升坐)하시고 그 백성(百性)을 위(爲)하야 기도(祈禱) 하시다가 그리로서 죽은 자(者)를 다시 살니시고 세상(世上)을 심판(審判)하러 재림(再臨)하시리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8조

八.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신피셔 사름으로 하여곰 죄와 환난을 끼치게 하시며 마음을 밝게하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뜻을 새롭게 하시고 권면하샤 복음에 기록헌대로 감 업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밋게 하시

며 의로운 열미를 밋게 하샤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 교회신경>

八. 성부(聖父)와 성자(聖子)로부터 오신 성신(聖神)께서 인생(人生)으로 구원(救援)에 참여(參與)하게 하시나니 인생(人生)으로 죄(罪)와 비참(悲慘)을 깨닫게 하시며 그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意志)를 새롭게 하시고 권(勸)하시며 권능(權能)을 주어 복음(福音)에 감입시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밋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役事)하야 모든 의(義)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 9조

九.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백성을 택 하샤 사랑함으로 그 압해서 거룩하고 흠이 업게 하시고 그 깃부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명하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스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시로되 오직 모든 세상 사람의게 디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감 업 시 주시라 하야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밋고 의지하야 본받으며 하느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야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스니 그리스도를 밋고 복종한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밋는바 특별한 리익은 의가 잇게 함과 의주가 되어 하느님 아 들 들 수에 참여하게 함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함과 영원한 영광이니 밋는자는 이세상에서도 구원얻는줄을 확실히 알고 깃버홀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때에 은혜베프시난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 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九. 하나님께서 세상(世上)을 창조(創造)하시기 전(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백성(自己百性)을 택(擇)하샤 사랑함으로 그 압해서 거룩하고 흠(欠)이 업게 하시고 그 깃부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명(作定)하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自己)의 아달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달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厚)하게 주시는 은혜(恩惠)의 영광(榮光)을 찬미(讚美)하게 하라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世上) 모든 사람의게 대(對)하야는 온전(穩全)한 구원(救

援)을 갑업시주시라고하여 명(命)하시기를 너희 죄(罪)를 회개(悔改)하고 주(主)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自己)의 구주(救主)로 믿고 의지(依支)하여 본(本)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服從)하여 겸손(謙遜)하고 거룩하게 행(行)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服從)하는 자(者)는 구원(救援)을 얻난지라 너희가 밋는바 특별(特別)한 유익(有益)은 의(義)가 잇게 하심과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달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신(聖神)의 감화(感化)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永遠)한 영광(榮光)이니 밋는 자(者)는 이세상(世上)에서도 구원(救援) 얻는 줄을 확실(確實)히 알 수 잇고 깃버할지라 성신(聖神)께서 은혜(恩惠)의 직분(職分)을 행(行)하실 때에 은혜(恩惠) 베프시는 방도(方道)는 특별(特別)히 성경(聖經) 말삼과 성례(聖禮)와 기도(祈禱)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10조

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세례는 성부성자 성신의 일흠으로 물노 씨습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는 언약을 밋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인즉 이례는 그리스도를 밋는자와 밋 그의 자녀들의게 행하는 거시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시니 이는 밋는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리익을 밋는 거슬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례는 주의 오실때 까지 주의 빅성이 힘할지니 이로 표하는 거슨 주를 밋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긔서 좃차나는 리익을 밋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밋 여러 교우로 더브러 교통함이라 성례의 리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베프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밋 밋음으로써 성례를 밋는 자가 온디 계신 성신의 힘함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聖禮)는 세례(洗禮)와 성찬(聖餐)이라 세례(洗禮)는 물을 가지고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신(聖神)의 일흠으로 씨습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併合)하는 표적(表蹟)과 인(印)침인대 성신(聖神)으로 그들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主)께 속(屬)한 것임을 약속(約束)하는 것

이라 이 례(禮)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信仰)을 고백(告白)하는 자(者)와 그들의 자녀(子女)들의게 베푸는 것이오 주(主)의 성찬(聖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紀念)하야 떡과 잔(盞)에 참여하난것이니 이는 밋는 자(者)가 그 죽으심으로 말대압아 나난 유익(有益)을 밋는 것을 인(印)쳐 증거(證據)하는 표(標)라 이 례(禮)는 주(主)께서 오실 때까지 주(主)의 백성(百性)이 행(行)할 지니 주(主)를 밋고 그 속죄제(贖罪祭)를 의지(依支)함가 거긔서조차나는 유익(有益)을 받음과 더욱 주(主)를 섬기기로 언약(言約)함과 주(主)와 밋여려 교우(教友)로더부러 교통(交通)하는 표(標)라 성례(聖禮)의 유익(有益)은 성례(聖禮)의 본덕(本德)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聖禮)를 베푸는 자(者)의 덕(德)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복(福)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聖禮)를 밋는 자(者)가온대게신 성신(聖神)의 행(行)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11조

十一. 모든 밋는자의 본분은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합심되여 그리스도의 성례와 다른 법례를 직히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직히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흠뻑 모히며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드르며 하나님 의셔 더히로 하여곰 풍성하게 하심을 좇차 연보하며 그리스도의 믿음과 갓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롭이게도 그와갓치 흘거시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하여 힘쓰며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

十一. 모든 신자(信者)의 본분(本分)은 입교(入教)하야 서로 교제(交際)하며 그리스도의 성례(聖禮)와 그 타법례(他法例)를 직히며 주(主)의 법(法)을 복종(服從)하며 항상(恒常) 기도(祈禱)하며 주일(主日)을 거룩하게 직히며 주(主)를 경배(敬拜)하기 위(爲)하야 함께 모혀 주(主)의 말씀으로 강도(講道)함을 자세(仔細)히 드르며 하나님께서 더히로하여곰 풍성(豐盛)하게 하심을 좇차 헌금(獻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同一)한 심사(心思)를 서로 표현(表現)하며 또한 일반인류(一般人類)의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원세상(世上)에 확장(擴張)되기 위(爲)하여 힘쓰며 주(主)께서 영광(榮光)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제12조

十二. 무지막 날에 죽은자가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寶座)에 서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행(善惡間行)한바를 밋고 보응(報應)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밋고 복종(服從)한 자(者)는 현저(顯著)히 사함을 얻고 영광 가운데로 마자드리느바 되려니와 오직 밋지아니하고 악(惡)을 행(行)한 자(者)는 정죄(定罪)함을 넘어 그 죄의 덕당한 형벌(刑罰)을 밋을지니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十二. 죽은 자(者)가 말일(末日)에 부활(復活)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審判)하시는 보좌(寶座)에 서서 이 세상(世上)에서 선악간행(善惡間行)한바를 따라 보응(報應)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밋고 복종(服從)한 자(者)는 현저(顯著)히 사함을 얻고 영광중(榮光中)에 영접(迎接)을 받으려니와 오직 밋지아니하고 악(惡)을 행(行)한 자(者)는 정죄(定罪)함을 넘어 그 죄(罪)에 적당(適當)한 형벌(刑罰)을 밋을지니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승인식

(承認式)

내가 이 교회의 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운줄노 밋스오며 곳나의 신경으로 삼고 공포하노라.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신경>

교회(教會)의 신조(信條)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基礎)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一致)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個人)의 신조(信條)로 공포(公布)하노라. <1933년 새로 번역한 신경(12신조)>

-자료출처: 1907년 독노회록, 1934년판 개정 헌법

위에서 보듯이 내용상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이전보다 더 발전했다. 첫째, 영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되었다. 둘째, 번역이 더 분명해졌다. 셋째, 신학적으로 용어가 다듬어져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점에서 재번역한 1934년 12신 신조는 1907년 12신조에 비해 의미가 더 분명하고

신학적으로 다 잘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충실하려는 나머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IV. 1907년 채택한 “12신조”에 대한 평가

과연 “12신조”에 대해 해외 선교부와 한국교회사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려 왔는가? 아마도 12신조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미국 북장로교해외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1856-1945)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선교에 대한 책임자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브라운은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901년과 1909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가 독노회가 조직되고 “12신조” 채택을 알러왔을 때 선교부의 책임자로 이를 검토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브라운은 1907년 채택한 12신조에 대해 “복음주의적이며 한국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조”(a creed which would be both evangelical and adapted to the needs of the Church)라고 평했다.⁵²⁾ 간단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당시 “복음주의”라는 말은 “보수주의”라는 말과 큰 차이 없이 프린스턴신학을 가리킬 때나 구학과 신학을 가리킬 때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말이다. 아마도 1903년 채택된 수정된 Westminster Confession을 염두에 두고 브라운이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도 모른다.

여기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수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장로교 신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간하배 교수는 “한국교회사 초기는 보수주의적 기독교,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역사였다”⁵³⁾고 지적했다. 1909년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아 마포삼열 역시 한국장로교회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다. “선교회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믿는 철저한 믿음과

52) Arthur J. Brown, *The Foreign Missionary An Incarnation of a World Movemen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2), 300.

53)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10.

열정적인 복음주의 정신을 특징으로 지냈다.”⁵⁴⁾ 그로부터 25년 후 1934년 마포삼열은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아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 선교부의 복음주의적 메시지는 확실하다. 선교부 산하 선교사들 대부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이라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며,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강한 확신을 지냈다.⁵⁵⁾

12신조를 검토하고 선교부의 책임자로 이를 인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아더 브라운이 역시 12신조가 “복음주의적”⁵⁶⁾ 신조라고 평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1907년 채택된 12신조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이 신앙고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칼빈주의 신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신앙고백으로 이해되어 왔다. 제일 먼저 그 같은 견해를 피력한 사람은 백낙준 박사이다. 백낙준 박사는 1928년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개신교사〉에서 12신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信仰告白 그 自體는 칼빈주의(Calvinism) 傾向이 強力하게 標示된 12個의 信條로 構成되었다. 이 告白은 하나님의 主權, 그리스도의 神性, 童貞女誕生, 罪의 代贖과 聖靈의 二元始發, 人間豫定, 恩寵의 抵抗不可能性, 聖禮典의 信仰, 肉身の 復活과 最後의 審判 등을 包含하고 있다.⁵⁷⁾

54) Harriet Pollard,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of the Prebyterian Church, USA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ersonnel,"-26.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11에서 재인용.

55) S. A. Moffett,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56.

56) Arthur Judson Brown, *The Foreign Missionary An Incarnation of a World Movement*(New York:Fleming H. Revell Co., 1932), 299-300.

57)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408.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29), 376.

백낙준의 평가는 한 마디로 12신조가 칼빈주의 경향이 강력하게 표시된 신앙고백이라는 평가다. 본래 영어 논문에는 “강력한 칼빈주의 경향의 12신조”(twelve articles of strong Calvinistic tren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⁵⁸⁾ 백낙준은 이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대속, 성령의 나오심, 예정, 불가항력적 은혜, 성례전의 신앙, 육신의 부활과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를 한 것이다. 이 같은 백낙준의 12신조에 대한 평가는 한국교회사 안에 아무런 비평이나 분석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백낙준에 이어 12신조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김양선이다. 그는 <한국기독교사연구>에서 백낙준의 12신조 입장과 평가를 그대로 계승했다. 그는 12신조가 “엄격한 칼빈주의적 신앙”을 담은 신앙고백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로 12가지, “성서무오, 신의 절대성, 삼위일체론, 신의 창조, 인간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작용, 예정론, 성례, 부활과 심판”을 들었는데 이것은 12신조 한 조항 한 조항의 주제를 망라한 것이다. 여기서 김양선이 제시한 12가지는 이미 백낙준이 <한국개신교사>에서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 신경은 오늘날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로 준수되어 왔으므로 한국장로교인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근본주의(Fundamentalism) 신앙을 가지고 있다”⁵⁹⁾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진보적인 교회사관을 대변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자 민경배 역시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1977년 <한국기독교교회사>에서 12신조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이 ‘12신조’의 특색은 그 강직한 칼빈주의적 경향에 있다. 성찬의 기념적 요소와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 화해, 성신의 이중적(二重的) 기능과 교회론의 핵심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의 엄격한 신앙과, 예정과 심판의 생생한 확신이 그것이다.”⁶⁰⁾ 이 같은 입장은 1982년 개정판 <한국기독교교회사>에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

58) 408.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29), 376.

59)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102.

60)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韓國民族教會形成過程史*-(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3), 226.

되었고,⁶¹⁾ 다시 출간한 개정증보판 〈한국기독교회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⁶²⁾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국교회사를 교수했던 이영헌 교수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78년에 출간된 〈한국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는 12개 신조로 된 장로회 신경의 채택이어었다. ... 그 특징은 근본주의적인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평했다.⁶³⁾

1907년에 채택된 12신조의 성격에 대해 “칼빈주의(Calvinism) 경향이 강력하게 표시된 12개의 신조”라는 백낙준 박사의 12신조에 대한 평가가 김양선에 와서는 “엄격한 칼빈주의”로, 민경배 교수에 와서는 “강직한 칼빈주의”로 그리고 다시 이영헌에 와서는 “근본주의”로 평가가 이어졌다. 백낙준 박사의 12신조에 대한 평가가 마치 판에 박은 듯이 그 후대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발견한다. 이 같은 평가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김인수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었다:

12신조는 철저히 칼빈주의 신학입장을 따르는 신조로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죄의 대가,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의 나오심, 예정론, 불가항력적 은사, 성례전의 신앙, 육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신조는 정통적인 장로교회의 신조로서 아무 흠이 없다 하겠으나 지나치게 교리가 폐쇄적이어서 다양한 신학이 비집고 들어 설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신학사조가 들어올 때는 그 분파의 가능성이 내다보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통장로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신학이 도래할 때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의미이다.⁶⁴⁾

김인수는 〈한국기독교회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백낙준, 김양선, 민경배, 이영헌과 동일한 평가를 내리면서 개인의 견해까지 추가했다. 백낙준, 김양선, 민경배, 이영헌, 김인수에 이르는 에큐메니칼 노선의 신학자들은 12

61)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改訂版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273.

6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증보판 (서울: 연세대학교, 1998), 292.

63)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리아 출판사, 1983), 129.

64)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90.

신조에 대한 평가는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엄격한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양선을 제외하고는 이 노선에 선 자들은 12신조의 신앙적 노선에 대해 불편한 자세를 갖고 있는 듯하다. 엄격한 칼빈주의, 근본주의 성향의 신학을 담지하고 있어 현대교회가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까지 개진했다.

지금까지 12신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낙준 박사 이후 대부분의 진보적인 교회사가들은 12신조가 “철저한 칼빈주의” “엄격한 칼빈주의” 심지어 “근본주의” 신앙고백이라고 평가를 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12신조가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V. “12신조”와 칼빈주의 신조(돌트 신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와의 비교

12신조에 담겨진 사상이 엄격한 칼빈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인도연합장로교회가 이 신조를 채택할 때 “서언”에 명기되어 있던 돌트신조(1616), 웨스트민스터 신조(1647), 그리고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1823)와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칼빈주의 모든 사상을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칼빈주의 사상을 잘 대변하는 다음 몇 가지, “언약” 사상, “예정론” “성경관” “성도의 견인” 사상, 그리고 “교회론”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이다.

첫째, 12신조에는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언약사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12신조의 제 6조에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한 것이라는 대표의 원리와 원죄의 개념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칼빈주의 핵심인 언약사상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담의 범죄에 인류가 동참했고 그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6조에서 인간의 타락을 다룬 다음 이어 7조에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Of God's Covenant with Man)을 기록

하고 있다.⁶⁵⁾ 7조 2항, 3항, 그리고 4항에서 “행위언약”(a covenant of works)과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⁶⁶⁾ 언약사상을 다루기는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도 마찬가지다. 웨일즈 신앙고백은 제 9조, “행위언약에 대하여”(Of the Covenant of Works), 제 10조 “인간의 타락과 원죄에 대하여”(Of the Fall of Man and Original Sin), 그리고 11조 “본성적으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Of the State of Man by Nature)에서 행위 언약을 다룬 뒤 제 13조 “영원한 은혜언약에 대하여”(Of the Eternal Covenant of Grace)에서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은혜언약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⁶⁷⁾ 돌트 신조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Of Divine Predestination) 17항에서 은혜언약을 명시하고 있다.⁶⁸⁾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은 언약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돌트 신조 그리고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에 분명히 나타나는 “언약” 사상이 “12신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권성수 교수가 “기존의 12신조에는 성경의 중심 원리인 언약”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⁶⁹⁾

둘째, 12신조에는 칼빈주의 신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예정론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예정론은 역사적 칼빈주의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12신조의 제 9조에 보면 예정론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라 하시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예정이 역사적 칼빈주의 특징인 이중예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65)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80), 62-64.

66) Ibid., 63-68.

67)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 html.

68)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585.

69) 권성수, “12신조 개정보완의 원리,”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제 3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에서 예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구원으로서의 예정과 유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특별히 제 3조 3항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의 현시를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foreordained)되었다.”⁷⁰⁾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칼빈주의 신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예정에 대해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도 제 12조 “은혜의 선택에 대하여”(On the Election of Grace)에서 이중 예정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거룩과 영생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지 않으신 채로 버려두셨다”고 기술한 뒤 “만약 은혜의 선택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¹⁾ 돌트 신조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Of Divine Predestination)에서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를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다.⁷²⁾ 이처럼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고백에는 이중 예정이 분명히 명시되었으나 “12신조”에는 이중 예정이 분명하지 않다. 12신조에 있는 예정론은 이중예정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성경관이다. 12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2신조에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내용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 1조 2항에서 성경관에 대해 기술하면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⁷³⁾ 성경의 권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70)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80), 32.

71)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html.

7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581-585.

73)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80), 4.

지다. 성경관에 있어서는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 2조에는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obedience)이라고 기록되어 12신조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⁷⁴⁾ 이에 반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조 5항에 성경이 “정확무오한 진리”(the infallible truth)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⁷⁵⁾ 이 부분을 우리 헌법의 번역문에도 “무오한 진리”로 번역하고 있다.⁷⁶⁾ 그러나 12신조에는 이 같은 성경무오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프린스턴 구학파가 강조했던 “영감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정확무오한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rule”이지 “the Word of God”이 아니기 때문이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 에이 에이 핫지(A. A. Hodge), 워필드(B. B. Warfield)를 비롯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영감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을 말했고, 그 결과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다.⁷⁷⁾ 다시 말해 오류가 없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찰스 핫지는 “성경의 무오성과 신적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⁷⁸⁾고 확신했다. 이 전통은 프린스턴 구학파의 일반적인 전통이었다. 이런 이유로 에이 에이 핫지(A. A. Hodge)와 워필드(B. B. Warfield)는 공동으로 저술한 그 유명한 “영감”(Inspiration)이라는 논문에서 성경이 영감

74)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 html.

75) Ibid., 5, 우리 헌법은 infallible을 “정확무오한” 혹은 “무오한”으로 양 쪽으로 번역하고 있다.

7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63.

77) 구 프린스턴 신학에 대해서는 필자가 번역한 David Wells,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5-86를 참고하라. 이 책은 개혁신주의 신학 시리즈로 엠마오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프린스턴 신학(1992), 웨스트민스터신학과 화관개혁신주의(1992), 남부개혁신주의 전통과 신정통신학(1992) 등.

78) 박용규,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사상,” 신학지남 252호 (1997년 가을호), 284.

된 오류 없는 말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확무오한 진리”라는 표현이 있어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해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신경도 드물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성경관 문제가 제기되자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오류 없는 말씀이라는 기독교 전통의 성경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infallible Word of God”)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 신앙고백이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을 충실하게 담아내려면 성경이 “영감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inspired and inerrant Word of God)이라는 분명한 성경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와 같은 보수적인 프린스턴 구학파의 성경관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인도연합장로교회의 신경을 차용하면서 그대로 그 신경에 담겨진 차원의 성경관 수준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장로교회는 블레어가 지적한 것처럼 “장로 정치를 채용한 장로교인들은 구 프린스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들였다.”⁷⁹⁾

넷째, 12 신조에는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고백에서 강조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인데 12신조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권성수 교수가 기존 12신조에는 “칼빈주의의 중요 교리인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을 잘 드러내지 않다”⁸⁰⁾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성도의 견인은 돌트 신조의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⁸¹⁾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의 34조 “은혜 안에서의 견인에 대하여”(Of Perseverance in Grace)에서,⁸²⁾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7조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⁸³⁾

79) William Blair,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121.

80) 권성수, “12신조 개정 보완의 원리”, 5.

8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592-595.

82)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html.

다섯째, 12신조는 교회정치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12신조 안에 나타난 교회론은 기성의 여타 칼빈주의 신앙고백에 비해 너무 약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 25조 “교회에 대하여”(Of the Church)에서 교회를 다루면서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universal church, invisible church)로 대별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⁸⁴⁾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도 칼빈주의 전통을 따라 신앙고백 제 35조에서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신비적인 교회(mystical church)로 대별하여 구체적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⁸⁵⁾ 이에 반해 12신조에는 11조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뿐 역사적 칼빈주의 전통에서 견지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약사상, 예정론, 성경관, 성도의 견인사상,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12신조는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돌트신조, 그리고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2신조에는 여타 다른 칼빈주의 신조에 있는 언약사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칼빈주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예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성경관에 있어서도 영감과 무오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는 칼빈주의 교회관이 12신조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확실히 12신조는 역사적 칼빈주의라는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영미 모(母) 장로교회가 자신들의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화란개혁신교회 신조로 삼고 있는 돌트신조, 그리고 웨일즈 장로교회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와 비견할 때 12신조의 내용이 “정통 칼빈주의”의 신조와 차이가 있다.

이런 견해는 필자의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른 개혁신주의 역사신학자들 역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김영재, 이상규, 권

83)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80), 126-130.

84) *Ibid.*, 187-195.

85)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html.

성수, 황규범 모두 12신조가 정통칼빈주의 신조라기보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복음주의운동과 부흥운동의 영향을 반영하는 신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길성 교수는 이번에 발표되는 논문 “12신조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12신조가 정통칼빈주의 신앙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김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비견해 가면서 12신조가 정통칼빈주의 신앙고백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일”(28)이 “옳지 않은 일”(28쪽)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12신조에 대한 필자의 평가에 대해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자의 12신조 평가가 독단적인 새로운 평가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의 12신조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반영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가 틀을 더해 가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박용규 교수의 지적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장로교회는 출발 초기부터 ‘복음주의 신앙’이 그 초석이 되었다는 박 교수의 복음주의 관점은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⁸⁶⁾

김 교수가 말하는 부분이 <한국기독교사 II권>에 있는 “장로회 신앙고백 12신조의 채택”이라는 필자의 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 관련 부분을 삭감 없이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로회 신앙고백 12신조의 채택

독노회가 결성되면서 한국장로교회는 소위 12신조로 알려진 장로교 신앙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채택했다.⁸⁷⁾ 본래 12신조는 영국장로교회가 자신들의

86) 김길성, “12신조에 관한 연구” 12신조 재검토 및 보안을 위한 심포지움, 2008년 5월 15일, 26.

87)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389.

선교지인 “印度國인 自由長老教會에 制定한 信經”⁸⁸⁾으로, 인도에서는 1904년에 그곳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했다. 노회 조직과 더불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한국의 선교사들은 신조의 서언만을 바꾼 후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로 채택한 것이다. 평양신학교가 설립된 후 그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쳐 왔지만 이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지 않고 12신조를 택한 것은 “선교지의 문화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선교지 교회의 신앙적인 자율성을 배려”하려는 의도에서였다.⁸⁹⁾ 그러나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요리문답 작은 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느니라”⁹⁰⁾는 12신조 서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하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조를 택한 선교사들의 이면에는 한국교회가 12신조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¹⁾

독노회가 채택한 12신조는 간단하지만 아더 브라운이 지적한 대로 대체로 “복음주의적이며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⁹²⁾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에의 예정, 성례, 그리고 종말과 심판에 대해 매우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신앙고백을 두고 백낙준 박사는 “신앙고백 자체는 칼빈주의 경향이 강하게 표시된 12조의 신조”라고 평했지만,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실제로 전통적인 장로교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 신앙고백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88) 郭安連, 장로교회 수년취집, 82.

89) 김영재, 한국교회와 신앙고백 (서울:성광문화사, 1989), 190.

90) “대한예수교회 신경”,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록(1907), 24.

91) 郭安連, 장로교회 수년취집, 75.

92) Arthur Judson Brown, *The Foreign Missionary An Incarnation of a World Movement* (New York:Fleming H. Revell Co., 1932), 299-300.

첫째는 성경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新舊約聖書는 하느님의 말이니 밋고 行할 本分の 確實한 法例인디 다만 이밖의 업느니라.”⁹³⁾ 이것은 성경이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법칙”(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의역한 것이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자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미국 장로교회는 성경관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the infallible Word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God)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었다.⁹⁴⁾ 성경관을 논할 때 그 출발점이 성경의 영감이었고, 부분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 영감(plenary inspiration) 또는 축자 영감(verbal inspiration)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영감의 결과로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에 비교할 때 12신조의 성경관은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⁹⁵⁾ 당시 한국에는 성경의 영감론에 대한 논쟁이 일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관을 이 정도로 정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본국이나 선교지 어디서나 늘 신학적인 다양성으로 인한 논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예견하여 분명한 성경관을 피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12신조에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무오성을 신앙과 행위에 국한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이 말을 복음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영감된 무오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왔다.⁹⁶⁾

둘째는 장로교 전통이었던 분명한 예정론 교리가 명문화되지 않고 대신 온건한 예정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2신조에는 칼빈의 엄격한 이중예정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고 대신

93) 郭安連, 장로교회 스턴회집, 76.

94) T. Stanley Soltau,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New York:World Dominion Press, 1932), 56-57.

95) 한국을 비롯 동양에서는 보수적인 신학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1930년대 들어 강하게 일어났다. William Ernest Hocking, *Re-thinking Missions* (New York:Harper & Brothers Pub., 1932), 102를 참고하라.

96)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서 2권 14장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에 기술된 해방 후 박형룡 박사와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학 논쟁, 특히 성경관 논쟁 부분을 참고하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예정, 즉 “하나님께서 世上을 創造하시기 前에 그리스도 內에서 自己 百姓을 擇하시 愛함으로 그 압해서 聖하고 欠無게 하시고, 其 聖意대로 더희를 豫定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自己의 子를 삼으셨스니”⁹⁷⁾라는 언급만 있다. 이 말이 이중예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천명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예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⁸⁾ 그것은 예정에 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내용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국에서 받았던 엄격한 장로교 이중예정과 달리 선교지에서의 오랜 선교사역을 통해 행여 성숙하지 못한 선교지의 교회가 엄격한 이중예정 교리로 인해 복음전도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05년 감리교와 장감연합공회 조직을 통해 감리교 선교회와 협력하여 한국선교를 가속화시키려는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2신조가 선교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은 12신조를 채택했을 때 단순히 12신조만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信經과 聖經要理問答 大小冊子는 聖經을 明解한 冊인 則 우리 教會와 神學校에서 맛당히 教授할 것으로 알며 其中에 聖經要理問答 小冊을 더욱 教會 問答으로 삼나니라”는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⁹⁹⁾ 12신조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12신조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반영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가 틀을 더해 가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왜 그들이 완벽한 신앙고백을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 출신이 중심이 되

97) 郭安連, 장로교회 수년회집, 78-79.

98) 1989년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있었던 “89 Evangelical Affirmation”에 나타난 예정론과 매우 유사하다.

99) 郭安連, 장로교회 수년회집, 75.

어 부흥운동과 더불어 조직된 한국장로교회는 초기 청교도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장로교 내 신파(New Side)와 유사한 면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⁰⁰⁾

위 글 중에서 이탤릭체로 된 것이 김 교수가 인용한 부분이다. 책 서문에서 선교사들의 신학과 관련하여 복음주의라고만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개혁파” 선교사들이라는 전제를 두었고, 12 신조와 관련하여서도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필자는 12신조가 “장로교 신앙에 기초한 신앙고백”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글을 써 내려갔다. 그러면서 12신조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피력하였다. 첫째는 백낙준 박사를 비롯한 이들이 칼빈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2신조가 선교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경관이나 이중예정론 등 “엄격한 칼빈주의” 보다는 복음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반영하는 신앙고백이라는 사실, 둘째, 12신조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을 한국교회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여 한국장로교회의 풍요로움을 더해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초기 청교도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12신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기술된 시대적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평가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역사해석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12신조에 담겨진 내용이 “엄격한 칼빈주의”라기보다 부흥운동과 복음주의 영향을 반영하는 신조라는 견해는 필자만의 독단적인 해석과 견해는 아니다. 한국교회 교회사 학계,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역사신학을 대변하는 김영재 교수, 이상규 교수, 그리고 계명대학교 황규범 교수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피력하고 있는 견해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개혁주의 역사신학자로 12신조를 연구 검토한 김영재 교수는 <한국교회사>에서 12신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백낙준은 이를 가리켜 칼빈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신조라고 하였으며, 많은

10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II 1910-1960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64-67.

이들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12신조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복음주의의 영향을 입어 사실은 개혁신주의적 내용이 다분히 희석화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말하자면 12신조는 예정론을 말하는 조항에서 이중 예정(二重豫定) 등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달리 신자의 선택에 관하여서만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가 복음주의와 부흥운동의 영향을 입어 수정하려던 부분인데 12신조에는 그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¹⁰¹⁾

여기 김영재 교수는 12신조가 “칼빈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신조”라기 보다 “개혁신주의적 내용이 다분히 희석화”된 “복음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신조라는 사실, 예정론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나는 2중 예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19세기 “복음주의와 부흥운동의 영향”을 반영하는 신조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영재 교수의 견해는 12신조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信條史的으로 조명한 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개혁신주의 역사신학자인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 역시 “한국에서의 개혁신주의 신학”이라는 글에서 유사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12신조에 대한 그의 평가는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길지만 여기 인용한다: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적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서는 1907년 독노회 조직 때 채택된 교리 표준이다. 독노회는 “12개신조”를 채택했는데, 이 신조는 ... 1904년 인도장로교회가 채택했던 동일한 신조를 단지 서문만 고쳐 그대로 채택했다. 이 신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유일신 하나님과 그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성령의 역사, 선택과 수양, 성례, 신자의 의무, 최후 심판 등 12가지 기본교리가 간명하게 언급되어있다. 아마도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독자적인 신앙고백서를 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동일한 고

101)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신주의신행협회, 1992), 148.

백을 갖게 함으로써 피선교국의 장로교회 간의 복음주의적 연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꼭 개혁주의나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전통을 세우고자 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집했을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불과 4년전인 1903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수정 채택했는데, 꼭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채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한 선교사들이 복음주의적 연대를 시도했던 점은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자 교파교회를 고집하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 곧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자고 합의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즉 선교사들은 한국장로교가 반드시 엄격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백낙준은 12개 신조가 "철저한 칼빈주의적 경향(strong Calvinistic trend)을 지닌 것"이라고 평했고 하비 콘은 이를 평가 없이 인용하고 있으나 12개 신조를 칼빈주의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어떤 점에서 12개 신조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12개 신조는 개혁신앙의 특색도 없지 않으나 근본주의적이기도 하고 정통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2개 신조가 기본교리를 말하는 단문으로 되어 있어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영재의 지적처럼 사실은 개혁주의적 내용이 희석화되어 있다. 이 12개 신조에는 칼빈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던 이중예정에 관한 고백이 없고 무엇보다도 근본주의와 구별되는 문화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말하자면 12개 신조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고백으로 규정할 수 없고 자유주의가 아닌 한 수용할 수 있는 기본교리를 표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윤리적 상황에서 단순한 기본교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에서 개혁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12개 신조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사상체계인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사상을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초기 한국교회 신학전통을 '개혁주의'로 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하비 콘(Harvie Conn)이 말한 바처럼 한국에 소개된 초기 장로교회의 신학을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¹⁰²⁾

이상규는 12신조가 장로교 사이의 복음주의 연대를 고려한 신조로 “칼빈주의 혹은 개혁신주의 사상을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규는 하비 칸의 말을 인용하여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앙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평한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을 개혁신주의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비록 개혁신주의적인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수주의 신학 혹은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적 신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⁰³⁾

최근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황재범 교수 역시 12신조의 채택과정, 12신조의 내용 분석을 통해 “엄격한 칼빈주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¹⁰⁴⁾ 황 교수는 김양선이 12신조의 성서무오설과 예정론을 들어 “엄격한 칼빈주의적 신앙”이라고 한 것에 대해 12조 내용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성서무오설”이나 “이중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필자는 황 교수가 제기한 12신조에는 웨슬리의 신앙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황 교수는 12신조에 웨슬리 감리교 신앙이 반영된 증거의 한 실례로 9조의 다음 내용을 들고 있다. “He maketh a full and free offer of salvation to all men, and commandeth them to repent of their sins,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to live a humble and holy life after His example and in obedience to God’s revealed will. Those who

102)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신주의 신학,” 역사신학 논총 창간호(1999), 397-399.구에서는 지면상 제외된다.

103) Ibid., 401. 또한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55-56을 보라.

104)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216. 황재범, “김길성 교수님의 ‘12신조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심포지움, 82-83; 황재범, “박용규 교수님의 ‘개혁신주의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본 12신조’에 대한 토론” 12신조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한 심포지움, 84-85.

believe in Christ and obey Him are saved..”

위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충분하고 대가 없이 제공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으며, 그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위 문장이 과연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인가에 대해 황 교수는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끝 문장을 번역하면서는 [누구든지]를 번역에 삽입시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번역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9조 항에 “While”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정을 말하는 앞의 문장과 “all men”에게 구원이 제시되었다는 뒷 문장이 대비를 이루어 한편으로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구원의 보편성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all men”이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을 반영하는 것도, 뒷 문장이 앞의 문장과 대조적인 문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뒤의 문장은 앞의 문장 즉 예정의 전제 속에 진행된 계속된 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후반부의 문장이 웨슬리주의적 보편구원론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구원을 말씀하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all men”도 앞에서 언급된 선택의 전제 속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all men”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선택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무제한적 속제가 아닌 택자들에게 제한되는 제한속죄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9조에 웨슬리주의적 구원사상이 반영되었다는 황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¹⁰⁵⁾

황 교수는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이 12신조에 반영된 이유 가운데 1823년의 웨일즈칼빈주의감리교와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동의하

기 힘들다. 그것은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이 웨슬리 영향을 받아 태동된 신앙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이 12신조에 반영된 것이 칼빈주의 감리교 영향 때문이라고 추론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 감리교 운동과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 운동은 철저하게 알미니안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운동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의 신앙과 칼빈주의를 융합하거나 조화를 시키려는 신앙운동이 아니다. 그 출발부터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는 웨슬리 영향을 받아 태동된 신앙운동이거나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신앙운동이 아니다.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는 조지 휘필드, 다이엘 로랜스를 비롯한 웨일즈의 칼빈주의자들이 시작한 신앙운동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웨슬리와 달리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다.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와 웨일즈의 칼빈주의는 적어도 그 태동 당시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구분되었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예정론과 기타 칼빈주의 신학을 두고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들과 웨슬리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오간 것도 그 때문이다.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가 철저하게 칼빈주의 전통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은 1823년에 채택된 웨일즈 칼빈주의 신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황 교수는 “infallible rule of faith”라는 12신조의 성경관이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신조와 유사하고, 또한 12신조와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신조에는 여타 칼빈주의 신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음부)에 내려가심”이 없는 공통점을 일례로 들어 12신조가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신조를 통해 웨슬리영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약으로 보인다.¹⁰⁶⁾ 12신조에 웨슬리주의적 구원론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초기 선교사들이 12신조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의 문답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105)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212, 216-217.

106) Ibid., 217.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12신조를 한국장로교회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면서 12신조가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을 병기시킨 것이다. 선교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장로교의 전통이 신학체계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다시 말해 12신조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보완해줌으로써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한국장로교회가 택한 “12신조”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모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돌트신경, 웨일즈칼빈주의신경과 같은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고백에 비해 칼빈주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낙준, 민경배, 김양선, 김인수, 김길성 교수가 12신조에 대해 “엄격한 칼빈주의”라고 평가한 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 12신조가 장로교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칼빈주의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당시 백낙준 박사가 공부하고 있던 예일대학교 신학부나 그의 지도 교수 침례교 목회자였던 케넷 라토렛 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12신조는 엄격한 칼빈주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몰라도 김영재 교수, 이상규 교수, 황재범 교수, 권성수 교수의 지적대로 실제로는 12신조에 나타난 예정론은 이중예정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12 신조에는 칼빈주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사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사상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성경관에 있어서도 영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고 “정확무오한”이라는 말도 신앙과 행위의 법칙(rule)에 국한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프린스톤 구학파 출신들이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inspired and infallible(혹은 inerrant) Word of God]이라는 개념과도 거리가 있다.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도 칼빈주의 전통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2신조가 자유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웨슬리주의적 감리교 알미니안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한국장로교회가 택한 “12신조”는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숙에 너무도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약한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리문답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12신조는 돌이켜 볼 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앙고백이었고,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12신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돌트신경, 웨일즈칼빈주의신경과 같은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고백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 신조라고 생각했다. 이들이 모교회의 신앙고백을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지 않고 “12신조”를 교회의 신조로 택한 것은 한국교회의 선교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면에서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인도연합교회가 택한 12신조가 선교지의 실정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아직 신학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칼빈주의 신조를 명문화시켜 행여 복음전파와 연합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 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칼빈주의 신조에 반대를 하거나 그것을 거부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장로교회를 위한 신조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마땅히 가르칠 신경으로 명문화시키고 대소요리 문답을 한국장로교회의 문답으로 1907년 독노회 때 이를 12신조의 서언에 명문화시켰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돌이켜 볼 때 한국장로교회는 12신조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함으로써 상호 보완을 통해 풍요로운 장로교 유산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소중하게 전수해준 장로교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로교 선조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청교도 칼빈주의 전통과 장대현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살아 숨쉬는 한국장로교회를 세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며 아시아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의 그 놀라운 빛을 부단하게 중단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갹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郭安全. 韓國教會史 改訂增補版. 서울: 기독교서회, 1973.
- 郭安蓮 編, 長老教會史典彙集.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18.
- 郭安連. 장로교회 50년회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9.
- 郭安連. 朝鮮예수교長老會 憲法 평양: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34.
- 車載明.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 上. 京城: 新門內教會堂, 1928.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회 독노회록.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3.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21회 총회록.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22회 총회록.
-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譯. 서울: 기독교서회, 1994.
- 곽안련. “朝鮮耶蘇教長老會信經” 〈神學指南〉 2권 2호 (1919).
- 권성수. “12신조 개정보완의 원리,”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영재. 한국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민경배. 韓國基督敎會史-韓國民族敎會形成過程史-.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3.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증보판. 서울: 연세대학교, 1998.
- 박순오. “12신조에 나타난 보편구원론적 사상은 정통주의 장로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권 1784-191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권 1910-1960.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 박용규.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사상,” 신학지남 252호 (1997년 가을호)
-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 논총 창간호. 1999.
-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리아 출판사, 1983.
- 황재범. “‘대한장로교회신경’ 혹은 ‘12신조’의 작성 및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
- 1907 Minutes of the Fif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And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Clark, Charles Allen.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 S. A. Moffett's *Letter to A. J. Brown*(Jan., 25), 1905.
- Underwood, L. H.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Brown, A. J. *History of the Christian Miss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김인수 역. 서울: 콜란출판사, 2003.
- Brown, Arthur J. *The Foreign Missionary An Incarnation of a World Movemen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2.
- Pollard, Herriet.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of the Prebyterian Church, USA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ersonnel."
- Rhodes, Harry A.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 Moffett, S. A.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 Stanley, Soltau, T.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New York:World Dominion Press, 1932.
- Paik,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29).
- Williamson, G. 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80.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 Welsh Calvinistic Confession WWW.Igmarshall.org/Creeds/welshmethodist. html.
- Wells, David.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 Blair, William.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 William Ernest Hocking, *Re-thinking Missions*. New York:Harper & Brothers Pub., 1932.
- Wells, David. 프린스톤 신학. 박용규 역. 서울 : 엠마오. 1992.
- Wells, David.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박용규 역. 서울 : 엠마오. 1992.
- Wells, David. 남부 개혁주의 전통과 신정통 신학. 박용규 역. 서울 : 엠마오. 1992.